

해외에서 활동하는 무용수들을 위하여

김경애 | 무용평론가

현재 국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을 받는 젊은 무용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다. 우리무용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들의 해외 활동과 귀국 후의 활동을 위해 좀 더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세계무대에 도전해 볼만큼 상당히 발전된 무용기술로 평가받는 무용계의 발전을 위해 전면적으로 이 일에만 집중하는 조직체가 필요하다.

이번 여름은 유독 춤공연이 적었다. 워낙 여름은 공연이 없는 시즌이었는데 근년 사이 무용공연이 급속으로 늘어나면서 예년까지는 여름도 공연 성수기 못지 않게 중요한 작품들이 발표되곤 했었다. 그에 익숙한 터라 갑자기 춤 공연수가 적은 여름을 맞으니 동공화 현상을 느끼기까지 한다.

이런 가운데 시선을 끈 것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무용가들을 초청해서 갖는 무대들이었다. 국제공연예술 프로젝트가 개최한 <제3회 한국을 빛낸 해외무용스타 초청대공연>과 정동극장이 주최한 김용걸과 김지영의 솔로무대 등이다. 여름에 해외 직업무용단에 입단해 춤으로 급료를 받는 이들이 대거 귀국해 무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때가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에 공연을 마련해 거기서의 활동상을 보여주고 싶은 그들의 욕구와 기획자의 의도가 맞아서 성사될 수 있었다. 기획자는 휴가 기간을 그들이 보람 있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다.

해외로 진출하는 무용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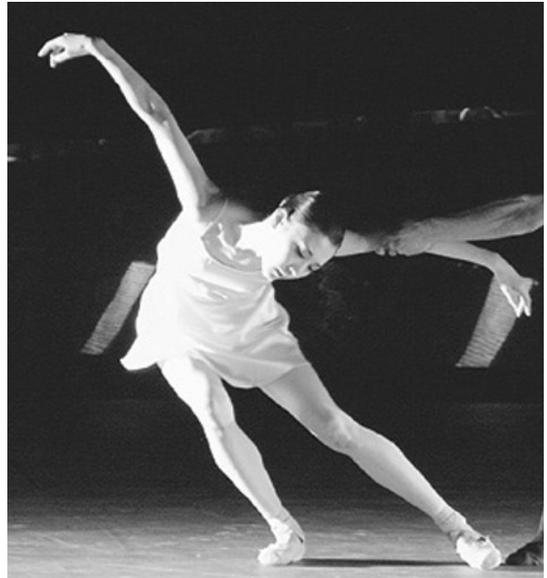
한국을 빛낸 해외무용스타 초청대공연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7월 21~22일)에서 열렸다. 스위스 쥐리히발레단의 김세연, 네덜란드국립발레단의 김지영, 영국 호퍼셔무용단의 차진엽, 미국 네바다발레단의 이유미, 캐나다국립발레단 서동현, 독일 에센발레단의 장유진, 리용오페라발레단의 이윤경 등이 현지 외국무용수들을 동반해서 참가했다. 사실 갈라형식으로 치루어진 이번 공연은 그들의 우수한 기량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일부 현대무용의 경우 국립극장 대극장의 큰 무대에 맞지 않는 솔로 작품들이 그들의 작품성을 반감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소극장무대에 세우면 알맞은 작품이 몇 작품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

획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젊은 무용수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공연과 더불어서 이들을 위한 후원회의 밤 같은 것이 연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해외 활동 무용수들은 꼭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을 받은 이들이다. 따라서 우리무용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외국 전선에서 혼자 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창구로서 이 공연기획은 좀 더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다. 앞으로 해외활동 무용수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하여 좀 더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후원자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기금마련과 돌아온 후의 활동을 위한 길 터주기 등 다각적인 모색을 할 수 있다. 전면적으로 이 일에만 집중하는 조직체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무용원이 전문 무용수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수년 전부터 우리 무용수들은 부쩍 해외무용단에 입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여기에는 문예진흥원의 신진무용가 지원 해외연수제도도 기여를 하고 있다. 해외연수를 위해 외국을 방문한 젊은 무용가들은 그저 견문만 넓히려 해외공연, 페스티벌 등을 관람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연 내가 서구인들의 춤단체 조직에 합류될 수 있는가를 타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2~3년 전만 해도 공연관람이나 워크숍, 레슨 등에 그쳤으나 지금은 작품마다 열리는 오디션과, 단체 입단 오디션 등 해외에 수개월 머무는 동안 그들의 꿈인 해외단체 입단을 성사시키려 시도한다.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춤기량과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적극적이다.

우리 무용가들이 해외로 나가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2005 한국을 빛내는 해외 무용스타 초청공연 장면

로 그 이유가 분류된다.

첫째는 우리나라에 무용 활동으로 급료를 받고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직업적인 보장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 외에 한국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무용단이 국립무용단, 서울시무용단 등 주요도시에 하나씩 있을 뿐이다. 수도권에 현대무용단은 직업무용단이 없다. 우수한 젊은 무용가들이 기웃거릴 수 있는 곳은 자신의 모교를 중심으로 한 대학뿐이다. 무용원이 우수한 기량의 인재들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일생을 바칠 수 있는 직업무용단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해외 활동 무용가들과의 문제점으로 연계되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우리의 과제이다. 직업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만 되어도 인재의 소실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현재는 결국 남자무용수들의 경우 특히 생계의 문제가 직결되니 젊었을 때 춤을 하다가는 스스로 다른 길을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군면제 제도의 경우도 우

수한 무용수들이 시상제도를 통해 군면제를 받고 그 후에는 무용을 그만두는 사례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 그러나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무용이 우수한 인재에 대해 직업적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건설적인 것이다. 무용학도들의 해외 유학에의 꿈은 그 어느 분야보다 강하다. 무대예술이 서양극장예술의 원형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고 현대무용, 발레 등이 서구에서 발전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과거에는 거기서 배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기서 활동을 하는 꿈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세계무대에 도전해 볼만큼 우리 무용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것으로 스스로를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무용가들이 해외 단체 입단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무용계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성큼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지난 30년 사이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해외단체들의 내한 공연, 국내단체들의 해외공연,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외국과의 합작 교류공연, 국제기구들의 증가, 해외연수 및 해외 활동 무용수의 증가, 그리고 외국인 강사들의 국내 교육시스템 수용 등도 발판이 되었다.

정동극장에서 열린 파리오페라발레단 김용걸의 무대를 보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들의 고독과 아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김용걸은 파리국제콩쿠르에서 김지영과 함께 1등을 했고 파리오페라발레단에 입단한 영예의 인물이다. 우리나라 무용계의 최고의 스타이다. 그 최고 스타가 해외단체에 입단해서 겪는 애환을 비디오와 함께 보여준 무대였다. 우리는 그가 파리오페라발레단에서 빛나는 배역을 받아서 스타로 군림하길 바라마지 않는데, 그것은 본인의 힘만으로는 불



정동극장이 주최한 솔로무대를 갖는 김용걸과 김지영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국가나 주위에서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춤만 잘 추는 것으로는 유리 천정으로 표현되는 출신 성분을 뛰어넘지는 못한다. 우리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가 마련하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은 그러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크다.

프랑스 국립그르노블무용단에서 만 5년을 주역으로 활동한 김희진이 이번 여름에 그 무용단을 사임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녀는 장 끌로드 갈로타가 이끄는 이 무용단에서 명실공히 주역 무용수로서 빛났다. 예리하고 순발력 있는 춤동작을 속도감 있게 구사해 많은 무대에서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사임할 당시 인터뷰에서 1년 간 프랑스 정부가 주는 실직수당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 그동안 앞날에 대해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외에서 활동하기도 어렵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도 어렵다는 데 있다. 우리 무용사회가 그들을 위해 좋은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도 팽창할 대로 팽창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쌓여있는데 해외에서 활동하며 국내에 공백을 둔 그들을 아무리 우수하고 경력이 좋아도 수용할 수 있는 준

앞으로 해외활동 무용수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하여 좀 더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후원자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기금마련과 돌아온 후의 활동을 위한 길 터주기 등 다각적인 모색을 할 수 있다.

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거기에 해외스타들의 고민이 또 있다.

직업무용단을 통한 시스템의 마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용계 젊은 무용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해외 쪽으로 나있다. 어떻게 진출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며, 국내에서 이름을 내고 있는 주요 무용수들은 한번쯤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경향이다. 올해 문예진흥원의 해외연수 기금을 받아 유럽에 머물고 있는 예효승은 벨기에 세들라베무용단의 창설자인 알렐 플라텔의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저녁기도>라는 작품은 2년 간 공연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 외에도 여러 무용가들이 해외입단 혹은 작품 출연의 시도를 하고 있다.

외국의 권위 있는 무용계 인사들은 우리 무용수들의 보편적인 기량에 대해 우수점을 주고 있다.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취약한 것으로 안무력을 꼽는다. 무용수들의 재질은 우수한데 안무력이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무 작품으로 세계의 유명단체로 입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직업무용단이다. 특히 수도권에 전무한 현대무용의 직업단체가 만들어져야한다. 여기서 무용수들과 안무자들이 우리 국립발레단의 조직적인 문제점을 갖추어 길러져야 한다. 그러면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돌아오는 우수 무용수들의 국내 수용이 가능하다.

사실 이들이 수년동안 해외 무용단에서 체험한 것을

그대로 우리 무용학도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큰 성과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직업무용단의 조직에서 활동한 그들이 학교라는 다른 조직으로 밖에 수용될 데가 없으니 결국 그들은 갈 곳이 없는 것이다. 프랑스 그르노블국립무용단에서 5년 동안 주역으로 활동한 김희진의 경험을 한국 무용단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는가, 그냥 개인의 추억 속으로 사장될 뿐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부분들에 대해 국내에서 수용 해주는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

덧붙여 말하면 우리 국립발레단의 조직적인 문제점을 연계할 수 있다. 직업발레단에는 부설 발레교육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직업 스타 무용수로 활동한 무용수들이 나이가 들어 여기에 수용이 된다. 그러면 노동조합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러시아 볼쇼이발레단의 이름을 서방에 처음으로 드높인 무대의 주인공인 갈리나 울라노바이다. 1956년 런던에서 볼쇼이 첫 서방 무대공연이 있었다. 그 울라노바가 은퇴한 후 꼬부라진 몸으로 학교에서 70대까지 가르쳤다. 바가노바학교에서 90년대에 복도를 오가는 그 작은 체구의 울라노바를 볼 수 있었다. 국립발레단의 스타무용수들이 은퇴하여 결국 어디로 가는가. 그들을 수용하는 문제는 해외 스타들을 수용하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김용걸과 김지영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우리는 그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국립발레단에 국립발레학교가 생겨서 여기서 마스터로서 그 해외 유명단체에서 배운 노하우를 가르치게 해야할 것이다.